

국제풍력포럼 10월20일 개최

<국제풍력포럼>이 코엑스에서 10월20일 개최됐다.

포럼은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KOTRA와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정부, 관련기업, 학계 등 국내외 풍력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.

변종립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의 축사에 이어 지식경제부 풍력담당관과 삼성중공업, 현대중공업, 대우조선해양, 효성 등 국내 풍력 시스템기업과 풍력발전기 생산기업인 인디아의 SUZLON, 해상풍력 부품생산기업인 독일 KK-Electronic 등 글로벌 풍력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해 <한국 풍력산업의 발전방안>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.

토론에서 국내기업들은 풍력 발전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해외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<풍력발전단지> 추진을 요청했다. 인디아의 세제혜택 정책을 사례로 들며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

또 유럽과 북미 지역의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.

특히, 유럽 북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타이푼(Typhoon)과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케이프 윈드(Cape Wind)는 해상풍력에 필수적인 드릴링 및 기반공사, 전선 매설, 특수선박 운송, 인공섬 구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요청했다.

이밖에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에너지부 장관을 겸임했던 조지 스미더만(George Smitherman)은 캐나다 신·재생에너지산업 환경과 함께 한국기업과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. <황지혜 기자>

<화학저널 2011/10/20>